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I. 주주총회 개요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상법과 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상법 제361조).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과 같은 회사 기관 구성에 대한 사항, 재무제표의 승인과 같은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합병·분할·자본감소 등과 같은 기본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합니다(상법 제362조). 소집시기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동법 제365조 제1항),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65조 제2항).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5조 제3항). 실무적으로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①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②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상법 제354조 제2항, 제3항) 등을 고려하여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의결권

상법상 의결권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의결권의 수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주주 간의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의결권의 행사방법

의결권은 주주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의결권은 대리행사도 가능하므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주주는 주주의 고유 권리인 의결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III.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주주명부

주식의 발행과 양도 등으로 주주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 양도의 효력 내지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앞서 살펴본 판례의 취지처럼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등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주주명부 폐쇄”), ②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기준일”)(상법 제354조 제1항).

IV.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상법상의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에 구분되어 예약되지만,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또는 조합장)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주인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 행사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입법화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 조합원계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1) 조합의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아 행사합니다. 조합원은 본인의 보유주식수 만큼 각각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사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2) 또는 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조합원의 의사표시(1번의 방법) 또는 의결권 위임요청(2번의 방법)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로 행사합니다.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투표 행사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주총회 참석 주식총수 : 2000주
- ▶ 우리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500주
(500주 중 의사표시 및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 총수 : 100주)
- ▶ (주주총회 참석 주식총수 2000주) - (의사표시 및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 총수 100주)
 - 1) 주주총회 찬성 주식수 : 1200주
 - 2-1) 주주총회 반대 주식수 : 600주
 - 2-2) 주주총회 기권 및 무효 주식수 : 100주
- ▷ 100주의 그림자 투표 결과는
 - 1) 찬성 : 63주 (63.15% → 63%)
 - 2) 반대 : 37주 (36.84% → 37% ∴ 기권 및 무효 주식수는 반대에 산입)
 ※ 1주 미만의 단수 발생 시,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절상함

2. 조합계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에 하나의 방식을 정하고, 조합장은 그 방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1)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
-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그림자투표)
- 3) 의결권 행사시마다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

V. 기타 사항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통일 행사는 총회 운영에 있어 혼란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시에도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가 필요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장이 이를 조합원에게 위임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조합원 본인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통일 행사에 대한 통지 절차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한 사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 ▶ 우리사주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 측에 의결권을 불통일한다고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입장을 불허하였는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불통일의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139, 2012.6.28.)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주총회 및 의결권과 관련된 상법상의 법리 및 판례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가운데, 총회운영의 용이성 및 회사이익의 침해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여 조합원들이 그 회사의 근로자이자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및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 등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